

연구보고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김정숙**

공동연구원 **연보라**

RESEARCH REPORT 2018



연구보고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책임연구원_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과 특성, 진로요구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 현황과 정책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를 분석한 후,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면, 우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약 70%는 지적장애 학생이며 이들 중 약 54%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근로자자녀 등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된다. 학교부적응 유형 역시 수업 및 학업부적응, 정서적 부적응, 인간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형 부적응, 공격성 부적응, 획일적 학교제도 거부형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경험 사건 분류를 통해 학업, 직업, 무업, 비행형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들 집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및 소극적 태도, 기초학력 부족, 자기이해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의 특성을 보이며, 낮은 진로의식 수준, 진로정보 부족과

높은 진로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진로교육 목표 및 방향, 진로교육 콘텐츠, 진로교육 교수방법,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여건개선을 기준으로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를 분석하였다.

상술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4개 추진전략 및 10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소외계층,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소외계층 학생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의 집단별 특성과 요구수준을 파악하여 소외계층 집단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소외계층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수준
- 소외계층 진로교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향 및 정책과제 개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포럼 및 전문가 자문조사

3. 주요결과

1)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지적장애 학생(약 70%)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53.8%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사회·환경적, 인지적, 행동적, 학습적, 발달적 특성이 상이함.
- 최근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증장애에 비해 중증장애 학생의 진학, 취업이 어려워 이들을 위한 전환준비 지원이 요구됨.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위축, 소극성, 높은 불안감 및 긴장감 등의 공통적 심리 특성을 보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은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거나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임.

● 이주배경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자녀, 탈북청소년 등으로 구분
- 공통적으로 낮은 학업성취, 기초학력 부족, 낮은 자존감, 우울 및 스트레스, 자기이해 부족 및 정체성 혼란, 그 외 취약한 가정환경의 특성을 보임.
-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의 경우 차별과 편견, 한국 사회 이해 부족,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을 나타냄.
- 진로와 관련하여 낮은 진로의식 수준. 진로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높은 진로장벽 수준, 부모의 낮은 진로관련지지를 보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
- 주요 진로고민은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름,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름 등임.

●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부적응 유형은 수업·학업 부적응, 정서적 부적응, 인간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형 부적응, 공격성 부적응, 획일적 학교제도 거부형으로 구분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직업, 무업, 비행, 무정(혼재) 등 경험 사건 분류를 통해 구분

- 빈약한 사회적지지(가족해체, 부모방임, 무관심 등),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불규칙한 생활습관, 낮은 학업성취, 낮은 학습의욕 등의 특성을 보임.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 둔 이유, 그만 둔 당시 연령, 가족배경 및 부모지지 여부에 따라 특성이 상이함.
-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에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의 어려움과 진로 찾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진로를 결정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준비에 대한 요구가 크고, 진로를 미결정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발견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 한계점 및 개선방안

● 정책 현황

구분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현황
특수교육대상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3조, 제24조 등 •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교육부 2009) • 장애학생 취업 창업교육 강화방안(교육부 2015)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2016~2020)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방안(교육부 2018. 3.)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방안(교육부 2018. 7.)
이주배경청소년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2016~2020) •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통일부 2018~2020) •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교육부 2017. 3. 24.) •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2017. 2.)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 3.6.)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Wee 프로젝트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8.3.6.)

- 한계점 및 개선방안

-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 및 목표 방향, 진로교육 콘텐츠, 진로교육 교수방법,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여건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음.

4. 정책제언

1)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 통합지원 방식의 진로교육 지원
- 잠재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
- 진로자립 역량 강화 진로교육
- 학습자 주도의 활동참여 중심 진로교육

2)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확대
 - 소외계층 집단 내 진로교육 사각지대 지원 강화
-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내실화
 -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 및 요구 반영 맞춤형 진로교육
 -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
 - 소외계층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인프라 강화
 -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 지속가능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환경조성
 -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소외계층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용어의 정의	4
3. 연구 내용	6
4.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전문가 포럼 및 자문조사	7
5. 연구보고서의 구성	9
 II.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11
1. 세부 유형 및 현황	13
1) 특수교육대상학생	13
2) 이주배경청소년	18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3
2. 특성 및 진로요구	27
1) 특수교육대상학생	27
2) 이주배경청소년	31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35

3. 요약	40
Ⅲ.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 한계점 및 개선방안	43
1.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	45
1) 특수교육대상학생	45
2) 이주배경청소년	49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53
2.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관련 한계점 및 개선 방안	58
1) 특수교육대상학생	58
2) 이주배경청소년	63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68
3. 요약	73
Ⅳ.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77
1.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79
2.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84
참고문헌	113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포럼 내용	8
표 Ⅰ-2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9
표 Ⅱ-1 특수교육대상학생 주요 현황 (2018년)	15
표 Ⅱ-2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	18
표 Ⅱ-3 외국인주민 자녀의 유형별 현황	20
표 Ⅱ-4 다문화학생 현황	21
표 Ⅱ-5 탈북학생 현황	22
표 Ⅱ-6 학교 부적응 유형	24
표 Ⅱ-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5
표 Ⅱ-8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 비율(2015년)	26
표 Ⅱ-9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사건 분류를 통한 유형 구분	27
표 Ⅱ-10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특성	28
표 Ⅱ-1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	28
표 Ⅱ-12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중요한 진로·직업교육 목표	29
표 Ⅱ-1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용별 필요성 정도	30
표 Ⅱ-14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	32
표 Ⅱ-15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	35
표 Ⅱ-16 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성	36
표 Ⅱ-17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특성	36
표 Ⅱ-18 학교를 그만 둔 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순위)	38
표 Ⅱ-1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성 정도	38
표 Ⅲ-1 특수교육 관련법 중 진로·직업교육 내용	46
표 Ⅲ-2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47
표 Ⅲ-3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50
표 Ⅲ-4 탈북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51
표 Ⅲ-5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52

표 Ⅲ-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진로·직업지원 내용	56
표 Ⅲ-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내용	56
표 Ⅲ-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원 사업	57
표 Ⅲ-9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연도별 진로 현황	59
표 Ⅳ-1 정책추진과제 도출의 근거와 내용	81
표 Ⅳ-2 소외계층 집단 내 진로교육 취약집단	88
표 Ⅳ-3 진로관련 기초역량	90
표 Ⅳ-4 해외 정책 사례(독일)	100
표 Ⅳ-5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104
표 Ⅳ-6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로드맵	110

그림 목차

그림 I-1 소외계층 대상의 범위	5
그림 I-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그림 II-1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별 현황	16
그림 II-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17
그림 II-3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7
그림 II-4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	20
그림 II-5 다문화학생 부모 국적별 현황(2017년)	22
그림 II-6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요구(2012, 2015)	33
그림 II-7 현재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 (2014, 2016)	34
그림 II-8 현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 (2014, 2016)	34
그림 II-9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인과구조	37
그림 II-10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소년원에 바라는 교육내용	39
그림 III-1 Wee 서비스 네트워크	54
그림 III-2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한계점 및 개선방안 분석틀	58
그림 IV-1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83
그림 IV-2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예)	92
그림 IV-3 소외계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예) ·	94
그림 IV-4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106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연구 내용
- 4. 연구 방법
- 5. 연구보고서의 구성

Chapter

I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법(2015년 6월 22일 제정)의 제정으로 진로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전담교사를 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3년에 시범 적용된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 2016. 4. 5.).

그런데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 내부 집단별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진로설계와 진로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2016~2017

1) 이 장은 김정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년 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이 개발 보급되었고(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2016b, 2016c, 2016d), 담당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 진로상담,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학생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다(교육부, 2016. 4. 5.).

소외계층 학생,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은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의 불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은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소외계층 집단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과 요구수준을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외계층 집단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진로교육법(2015. 6. 22. 제정)²⁾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에서 사회적 배려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에서 2018. 8.6. 인출.

대상자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후 교육부(2016. 4. 5.)의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 2020)’에는 진로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를 세부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을 진로교육법 및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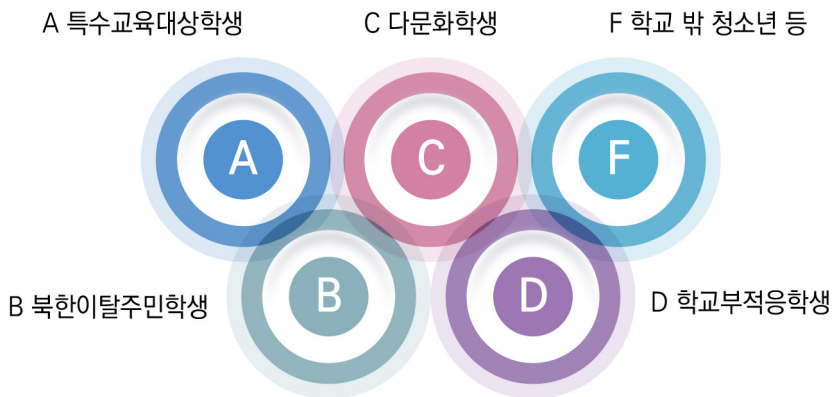


그림 I -1 소외계층 대상의 범위

3) 진로교육법 및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는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학교 안팎에 존재하는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탈북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학생의 개념보다 범주가 넓은 청소년이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2장 이하에서는 탈북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이 ‘이주배경’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 집단을 묶어서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1) 소외계층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수준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외계층 집단별 학생 현황과 특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진로교육 관련 요구 수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본다.

(2) 소외계층 진로교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소외계층 집단별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정책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교육부의 지원정책이, 탈북청소년은 교육부와 통일부의 지원사업이 주를 이룬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이 주를 이룬다.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 관련 지원정책을 정리하는 동시에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3)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향 및 정책과제 개발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 및 특성, 진로교육 지원 시 고려사항, 현재의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과 전제, 나아가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제안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시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그림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진로요구 수준을 살펴 보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문헌분석을 실시 하였다.

2) 전문가 포럼 및 자문조사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 정책현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나아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포럼 및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포럼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으로 서면 자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 세부과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1 전문가 포럼 내용

주제	참여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전문가 4명 발표 및 토론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다문화청소년 관련 전문가 4명 발표 및 토론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탈북청소년 관련 전문가 4명 발표 및 토론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5명 발표 및 토론

전문가 서면 자문조사에서는 1) 집단별 진로교육 관련 주요 한계점 및 개선 방안을 ① 진로교육 목표 및 방향 ② 진로교육 콘텐츠 ③ 진로교육 교수방법 ④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여건 개선 항목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2) 집단별 진로교육 관련 단기 및 중단기 과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전문가 서면자문조사에는 특수 교육 분야 9명, 이주배경청소년 분야 8명, 학교부적응 학생·학교 밖 청소년 분야의 5명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5. 연구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 구성은 <표 I-2>와 같다.

표 I-2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연구내용	보고서 구성	주요 내용
소외계층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II 장	• 소외계층 집단별 세부유형 및 현황 •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 및 진로요구
소외계층 진로교육 정책현황, 한계점 및 개선방안	III 장	•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정책현황 •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한계점 및 개선방안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IV 장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제II장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 1. 세부 유형 및 현황
- 2. 특성 및 진로요구
- 3. 요약

소외계층 집단별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 4)

1. 세부 유형 및 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특수교육 대상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한다.⁶⁾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4) 이 장은 김정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5) 이 절은 본 연구에서 개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금미숙 팀장(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이 집필하고 발표한 원고를 김정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음.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 2018. 8. 2. 인출.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에서> 2018. 8. 2. 인출

이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고 있다. <표 II-1>에는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 주요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표 II-1 특수교육대상학생 주요 현황 (2018년)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5,919	48,848	15,595	418	90,780
학 생 수	장 애 영 역 별	시각장애	1,260	267	450	4	1,981
		청각장애	762	687	1,801	18	3,268
		지적장애	14,390	30,041	4,268	48	48,747
		지체장애	3,680	3,924	2,714	121	10,439
		정서·행동장애	214	1,337	670	-	2,221
		자폐성장애	5,065	6,283	803	5	12,156
		의사소통장애	124	1,150	802	5	2,081
		학습장애	20	1,062	545	-	1,627
		건강장애	30	154	1,574	-	1,758
		발달지체	374	3,943	1,968	217	6,502
		계	25,919	48,848	15,595	418	90,780
	학 교 과 정 별	장애영아	164	-	-	418	582
		유치원	944	3,058	1,628	-	5,630
		초등학교	7,245	24,169	6,617	-	38,031
		중학교	5,534	9,990	3,264	-	18,788
		고등학교	7,076	11,422	4,086	-	22,584
		전공과	4,956	209	-	-	5,165
		계	25,919	48,848	15,595	418	90,780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p. 3.
 *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후 과정(수업연한 1년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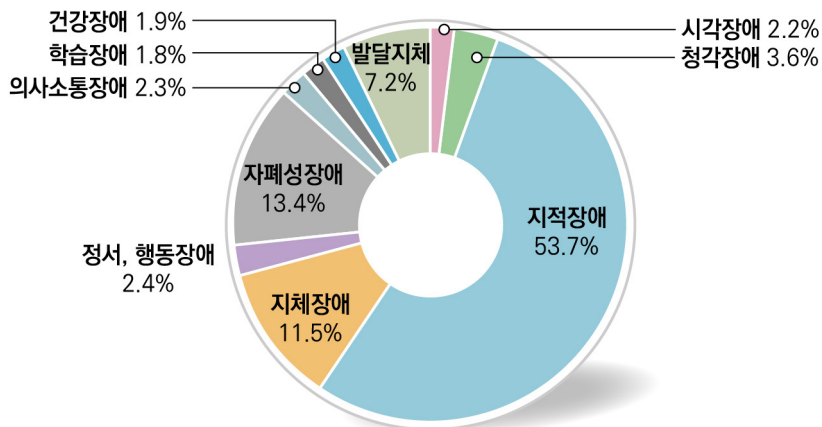


그림 II-1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별 현황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p. 3.

장애영역별 현황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지적장애학생이 48,747명(53.7%)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12,156명(13.4%), 지체장애 10,439명(11.5%) 순으로 많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지적장애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II-2]와 같이 175개의 특수학교 중에서도 지적장애 특수학교가 121교(69.2%)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20교(11.4%), 청각장애 14교(8.0%)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8: 3~5).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3]과 같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48,848명(53.8%)이 재학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특수학교(28.5%), 일반학교 일반학급(17.2%) 순서로 높다(교육부, 2018: 4).

정리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70%인 64,443명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보다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 배치율이 높은 것은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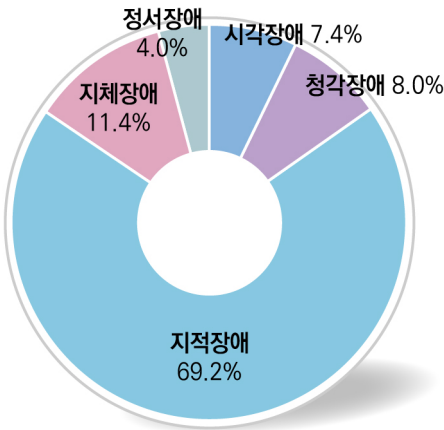


그림 II-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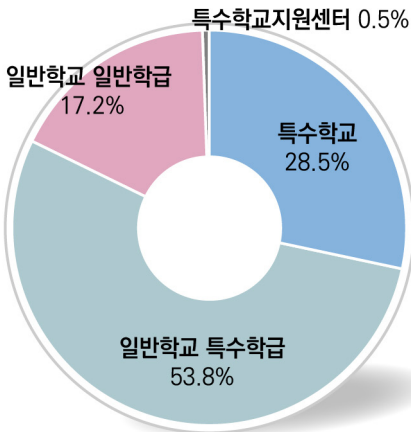


그림 II-3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출처: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p. 4.

2)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복지지원법」⁷⁾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⁸⁾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을 <표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청소년, 국제결혼가정에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재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북한출생인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에서 출생한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주 경험을 지닌 청소년이다.

표 II-2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

구분	설명
다문화(가족)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주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18. 8. 6. 인출

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8. 8. 6. 인출

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2018. 8. 6. 인출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 8. 6. 인출

구분	설명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에서 데려온 청소년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재입국한 청소년 - 그 외에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을 폭넓게 포함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⁹⁾ 제2조에 따른 외국인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¹⁰⁾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 - 넓은 의미에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모두 포함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http://www.rainbowyouth.or.kr/index/rainbowyouth.php>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은 넓은 범위에서 본인 및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나 그 의미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이주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해당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을 매년 발표해오고 있는데, 이때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를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17. 11. 16.).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를 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탈북청소년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은 제외된 한계점을 지닌다.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자녀의 수는 201,333명으로,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95.1%)에 해당되며, 일부 귀화하거나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4.9%)도 존재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미취학 아동(56.4%)이며, 초등학생이 28.2%, 중·고생이 15.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행정안전부, 2017. 11. 16.).

표 II-3 외국인주민 자녀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합 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333	102,961	98,372	9,874	4,683	5,191	191,459	98,278	93,181

출처: 행정안전부(2017.11.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p.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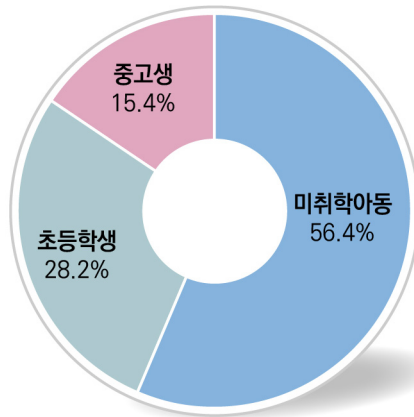


그림 II-4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17.11.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p. 65.

이주배경청소년의 재학 현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다문화학생 현황과 탈북학생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학생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뿐 아니라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2012년 46,954명에서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비율의 가장 높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8. 31.). 하지만 최근 국내출생의 비중이 적어지고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포함하여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II-4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가정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국내출생	중도입국	
2017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89,314	7,792	12,281
2016	99,186	73,972	15,080	9,816	318	79,134	7,418	12,634
2015	82,536	60,162	13,827	8,146	401	68,099	6,261	8,176
2014	67,806	48,225	12,506	6,734	341	57,498	5,602	4,706
2013	55,780	39,360	11,280	4,858	282	45,814	4,922	5,044
2012	46,954	33,740	9,627	3,409	178	40,040	4,288	2,626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3) 국내출생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4) 중도입국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5)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 9.

부모의 출신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국, 필리핀, 중국(한국계), 일본의 순으로 상위 5개 국적의 비율이 82.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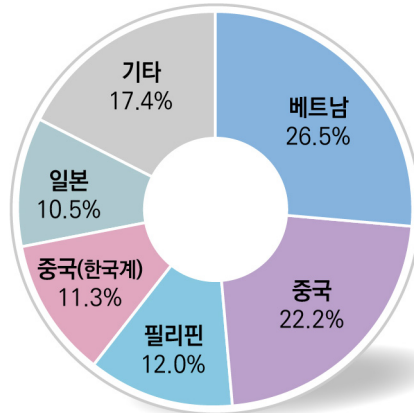


그림 II-5 다문화학생 부모 국적별 현황(2017년)

출처: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 10.

* 기타에는 태국, 몽골, 러시아,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포함됨

다음으로 탈북학생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출신으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수는 2011년에 1,681명에서 2017년에는 2,5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11년 60.7%에서 2017년에는 40.5%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탈북학생 가운데 중국 등 제 3국 출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수가 북한출생 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2017. 8. 2.).

표 II-5 탈북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학교급			출생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북한출생	중국 등 제3국 출생

구분	전체	학교급			출생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북한출생	중국 등 제3국 출생
2017	2,538	1,027	726	785	1,101	1,437
2016	2,517	1,143	773	601	1,200	1,317
2015	2,475	1,224	824	427	1,226	1,249
2014	2,183	1,128	684	371	1,204	979
2013	2,022	1,159	478	385	1,182	840
2012	1,992	1,204	351	437	1,284	708
2011	1,681	1,020	288	373	1,073	608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7.08.02.). 「2017년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p. 2. 재구성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은 학교 안에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규 학교교육의 제도나 법규 등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기대 및 전망과 일치하지 않거나 학교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이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달되는 학생”과 “가정,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의미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9~10).¹¹⁾

이혜영 외(2013: 212)의 연구는 학교 부적응 유형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부적응을 야기하는 요인에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혜영 외, 2012: 37).

11)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의 보고서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부적응의 결과로서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를 가정할 수는 있으나,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학교’ 내에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을 지칭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개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기로 한다.

표 II-6 학교 부적응 유형

유형	학교 부적응 현상
수업 학업 관련 부적응	기초학력 부진, 소극적 수업 참여
정서적 부적응	무기력, 의욕 상실, 낮은 자존감, 우울 등
인간관계 부적응	교사관계 부적응, 친구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형 부적응	강압적 통제에 대한 저항, 외모 관련 규칙에 대한 저항
공격성 부적응	폭행, 따돌림, 금품 갈취, 학교 기물 파손 등
획일적 학교제도 거부형	자발적 중퇴, 대안학교 선택 등

출처: 이해영 외(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I)」. p. 212.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¹²⁾

윤철경 외(2017)에 따르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015년 기준 405,849명으로, 2012년 이후부터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 8. 6. 인출.

표 II-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구분		인구 수				비고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학 령 인 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A)	7,126,098	6,862,319	6,650,243	6,433,576	• 2015.12.31. 기준 • 안전행정부(2015).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외국인 자녀 중 학령인구(B)	13,372	14,780	23,158	19,266	• 2004~2015년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4~2015) 원 자료 활용
학 생 수	교육통계상 학생 인구 (C)	6,715,622	6,460,545	6,262,541	6,061,849	• 2015.4.1. 기준 재학생수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연보.
	순 학업중단자 수(D)	29,895	26,044	21,413	19,523	• 2015.4.~2015.12. 9개월간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추정치)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수(E)	-	-	3,610	4,667	• 2013년 만 14세 이하, 2014년 만15세 이하, 2015년 만16세 이하 고3학생 중 졸업자 수(추정치)
학교 밖 청소년 수(F)		453,743	442,598	428,663	405,849	• F=(A+B)-(C-D+E)

출처: 윤철경 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 p. 374.

또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405,849명을 기준으로 볼 때, 학교급별, 성별 비율은 <표 II-8>과 같다.

(단위: 명(%))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 윤철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월별 경험사건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5개 집단으로 구분한 바 있다. 경험사건에는 첫째, 학업관련 경험(①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②대안학교에 다님(인가/비인가 모두 포함), ③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④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학원 등), ⑤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둘째, 직업 관련 경험(⑥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⑦자격증 및 취직시험(공무원 시험 등) 준비, ⑧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셋째, 무업(⑨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넷째, 비행 관련 경험(⑩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⑪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⑫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⑬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⑭소년원에서 생활함)이 포함된다(윤철경 외, 2016: 31~32).

표 II-9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사건 분류를 통한 유형 구분

경험 유형	해당 경험
학업	학업, 학업+직업, 학업+니트
직업	직업, 직업+니트
무업	니트
비행	비행, 비행+다른 한 개 유형, 비행+다른 2개 유형, 비행+다른 3개 유형
무정(혼재)	위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학업+직업+니트

출처: 윤철경 외(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pp. 31~32.

2. 특성 및 진로요구

1) 특수교육대상학생

(1) 특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사회·환경적, 인지적, 행동적, 학습적, 발달적 특성이 상이하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24~26). 최근에는 장애 중증화와 중복화 추세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경증 장애학생에 비해 진학과 취업이 어려워 졸업 후 성인기 전환 준비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상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심리적 특성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25).

표 II-10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특성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 부정적 자아개념 • 불안감, 긴장감, 공포감 등으로 위축된 성격 •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 • 의존적 성향 • 내성적 성격 • 본인의 주관적 자아와 타인의 기대적 자아간 불일치로 인한 혼란	• 자기중심적, 경직성 • 불안정한 성격 • 욕구불만, 반항적 성격 • 부모와의 관계가 성격에 영향	• 부정적 자아개념 • 고정된 성격 • 실패와 좌절 경험에 따른 소극적 성격 • 낮은 자존감 • 상황적, 외부단서들에 의존하는 외부 지향적 성향	• 부정적 자아개념 • 정서불안, 과민함, 열등감, 자발성 부족 • 타인 및 자신의 감정상태 파악 어려움 • 낮은 자존감 • 높은 방어기제	• 슬픔, 우울함, 자기비하 등 부정적 감정 • 욕구불만, 냉담, 공격적, 퇴보적 성격 • 높은 강박관념 • 타인과의 접촉 회피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a).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p. 25.

(2) 진로요구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요구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

내용	비율(%)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29.5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27.2
나는 공부하는 게 어렵다.	18.8
나는 늘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7.9
나는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6.6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렵다.	6.0
기타	4.0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a).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p. 40.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주요 진로고민은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29.5%)였으며,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27.2%)가 그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40).

진로정보, 진로경로, 학교생활, 학습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상담 요구수준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나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고 싶다)가 2.58점(3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진로정보(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싶다)에 대한 요구가 2.5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41).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목표는 독립적·상호의존적 일상생활 능력 함양(73%),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습득을 통한 취업(58.3%), 일의 세계인식 및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 형성(25.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홍정숙, 2015: 284).

표 II-12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중요한 진로·직업교육 목표(중복응답)

내용	비율(%)
일의 세계인식 및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 형성	25.0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습득을 통한 취업	58.3
상급학교 진학	4.2
사회적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 및 인성 형성	18.8
건전한 여가활동 능력 함양	0.0
독립적·상호의존적 일상생활 능력 함양	73.0
지역사회생활능력 함양	20.8

출처: 홍정숙(2015).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대구지역을 중심으로. p. 284.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은 대인관계 기술(4.34/5점 척도), 일상(독립)생활 기술(4.33), 의사소통 기술(4.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요섭, 2014: 33).

표 II-1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용별 필요성 정도

내용	점수(5점 척도)	순위
대인관계기술	4.34	1
일상(독립) 생활 기술	4.33	2
의사소통 기술	4.31	3
고용/직업준비 기술	4.30	4
기초적 학업 기술	4.29	5
자기결정/옹호 기술	4.28	6
지역사회 이용 기술	4.27	7
건강유지/체력단련 기술	4.17	8
교교 이후 교육/훈련 준비	4.09	9
여가/레크리에이션 기술	4.00	10

출처: 김요섭(2014). 일반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p. 33.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 학부모의 진로요구 수준을 종합해 보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타인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 등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흥미, 적성 등을 발견하고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진로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이주배경청소년

(1) 특성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세부 유형 집단에 따라 성장배경이 상이하고, 집단별로 발달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크게 자신이 직접 이주한 경우 인지, 부모님이 이주한 경우인지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이주배경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출생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직접적인 이주경험을 겪지 않았으며, 일반 청소년들과 성장배경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27). 다만,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일반 가정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학업이나 교우관계, 심리적 영역 등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연보라, 2017: 128).

한편 본인이 이주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낮은 학업성취의 원인이 되고,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26; 최경자 외, 2011: 4).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 차이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박혜준, 2008). 특별히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입국 전의 장기간의 학습공백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할 수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c: 23-2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 자기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25-27;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c: 23; 이진석, 2014). 전술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II-14>와 같다.

표 II-14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

영역	내용	해당 집단
학업	• 낮은 학업성취, 기초학력 부족 (탈북청소년: 학습공백 발생)	공통
심리	• 낮은 자존감, 우울, 스트레스 (탈북청소년: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공통
사회, 문화	• 차별과 편견 경험 •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 문화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탈북청소년
정체성	• 자기 이해 부족 및 정체성 혼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언어	• 한국어 능력 부족 (탈북청소년: 남북한 언어 차이)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탈북청소년
가정환경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가정 다수 • 부모의 한국사회 이해 부족 • 문화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경험	공통

(2) 진로요구

양계민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의식 수준이 낮고, 정보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부모로 받는 진로관련지지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프로그램의 요구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양계민 외, 2016: 309).

실제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53.7%), 직업기술훈련(42.0%), 학습지원(41.5%), 일자리 소개(39.0%), 외국계 부모나라 언어교육(36.2%)의 순으로 나타나 진로와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484). 이는 2012년 조사와도 유사한 결과인데, 특히 진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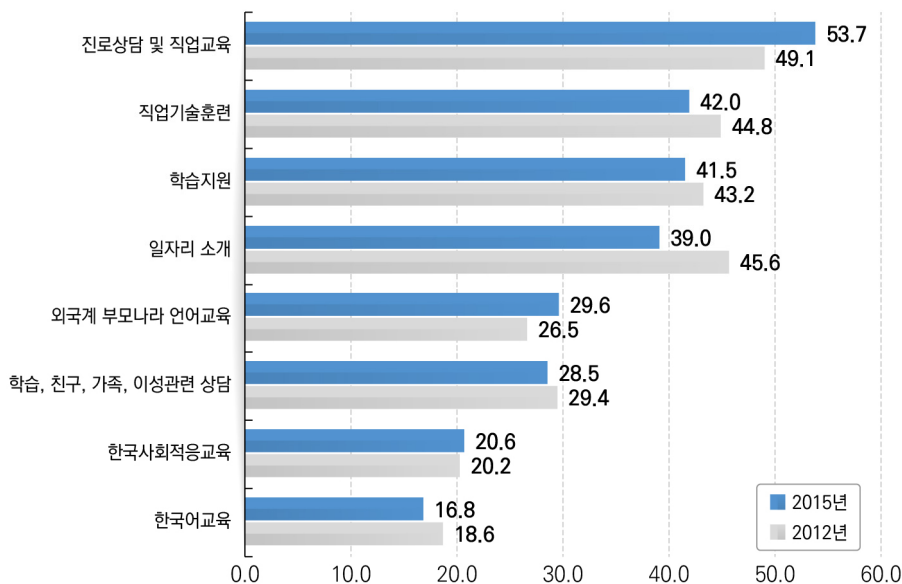


그림 II-6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요구(2012, 2015)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p. 484. 재구성.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향후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학습 및 학업(공부) 지원,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상담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6: 17). 진로상담에 대한 지원 요구는 3위에 머물렀으나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진로상담에 대한 지원요구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출생과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모두 동일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16: 1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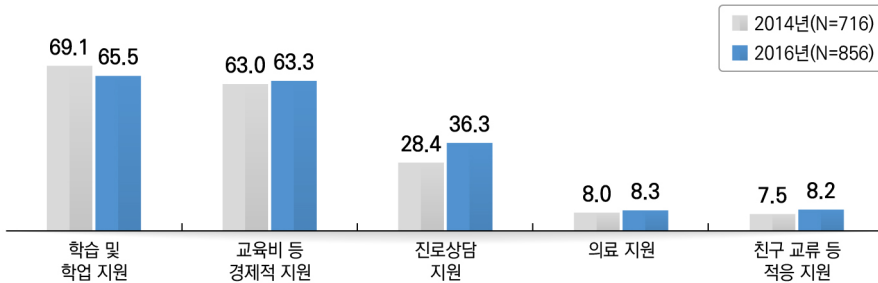


그림 II-7 현재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 (2014, 2016) (단위: %)

출처: 남북하나재단(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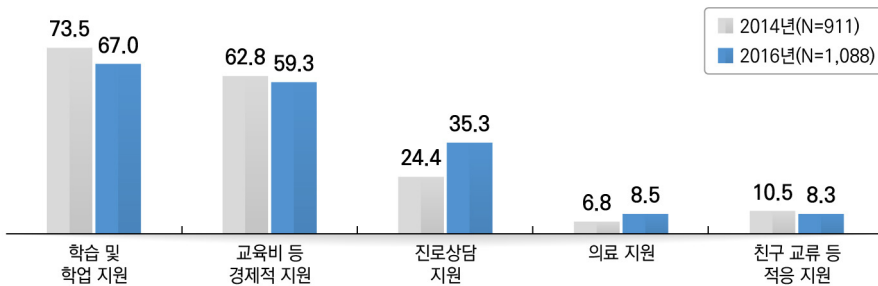


그림 II-8 현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 (2014, 2016) (단위: %)

출처: 남북하나재단(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p. 39.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계획하고 설정하는 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42;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c: 43).

표 II-15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의 주요 진로고민

(단위 : %)

내용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33.1	30.0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31.1	31.6
나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15.9	16.1
나는 진학 혹은 취업을 위하여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4.4	11.6
나는 늘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3.7	5.2
나는 학교적응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1.7	1.9
기타	0.1	3.5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b).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p. 42.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c).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p. 43.

다음으로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교진로상담(지도)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장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발굴하여 진로경로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초지원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기효능감과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43;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c: 44).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 특성

이혜영 외(2012: 41)의 연구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업 및 학업 태도가 좋지 않고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우며, 교사나 동료 학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학교 교칙에 대한 위반 및

폭력 성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공격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표 II-16 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성

영역	내용
수업·학업	낮은 학업성취, 학습의욕과 흥미 상실, 수업 참여가 어렵고 집중하지 못함, 수업(학습) 태도가 좋지 않음 등
관계	교사를 멀리함, 교사의 지시 무시, 동료 학생의 놀림과 거부, 괴롭힘, 왕따, 친구를 못 사귀는 등
규범	무단지각, 무단결석, 공격성, 학교 교칙 위반, 폭력 등
정서	낮은 자존감, 우울감, 불안, 공격성 등

출처: 이해영 외(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Ⅰ)」. p. 41.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특성은 학교를 그만 둔 후의 미래에 대한 불안, 장래희망의 부재, 무기력함 등 목표의 부재 현상을 보이며,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며, 가정해체 또는 부모의 방임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사회적 지지환경이 취약하다.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심한 감정 기복 등 상담관계 형성이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오혜영 외, 2012: 76).

표 II-17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특성

영역	내용
목표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안, 장래희망의 부재, 욕구의 잦은 변동, 무기력함,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 상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함, 율빠미족, 숙식의 불안정, 부모의 방치, 통제해줄 수 있는 율타리에 대한 양가감정
빈약한 지지환경	가족 구성원 결손, 가족의 기능적 결손, 빈약한 사회적 지지
상담관계 형성의 어려움	아군과 적군 구별의 동물적 감각, 주변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지 않음, 공감능력 결여, 상담자를 테스트, 감정 기복이 심함

출처: 오혜영 외(2012).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상담 매뉴얼 개발」. p. 76.

한편, 최인재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배경(가족해체 여부, 부모양육태도 등)과 학교를 그만 둘 당시의 진로계획 유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활동상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비행 또는 학교부적응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서도 심리·정서적, 활동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최인재 외, 2015: 194-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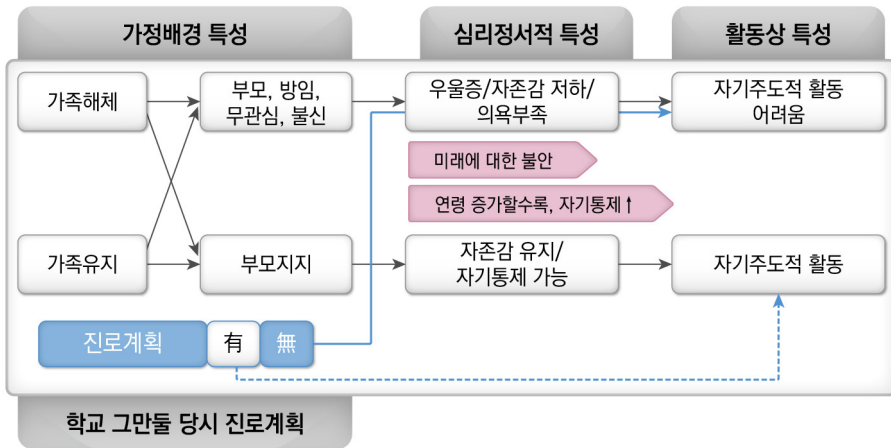


그림 II-9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인과구조

출처: 최인재 외(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195.

(2) 진로요구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요구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부적응의 결과 학교를 그만 둔 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요구에 대한 조사는 일정 부분 찾아볼 수 있었다.

최인재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후에 겪고

있는 어려움(1순위)에는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가 4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 28.8%, 부모와의 갈등 26.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 찾기의 어려움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다음으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8 학교를 그만 둔 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순위)

	선입견, 편견, 무시		진로 찾기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없음		일을 구하기 어려움		의욕 없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도움 받을 곳이 없음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n=4,691)	2,012	42.9	1,351	28.8	1,232	26.3	1,210	25.8	935	19.9	923	19.7	676	14.4	556	11.9

출처: 최인재 외(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138.

상술한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그 중 1순위부터 6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지원(M=2.87), 건강검진 제공(M=2.82), 진로탐색 체험(M=2.78), 직업교육훈련(M=2.76), 진학정보 제공(M=2.75), 각종 질병 치료(M=2.72)의 순서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진로와 직업 관련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성 정도(1순위, 4점 만점)

응답자의 특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n=4,691)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제공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 훈련	진학정보 제공	각종 질병 치료
	2.87(0.966)	2.82(0.903)	2.78(0.944)	2.76(0.951)	2.75(0.966)	2.72(0.940)

출처: 최인재 외(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150.

최인재 외(2015)의 연구결과 중 면담조사 결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진로를 결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취득 및 진로준비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발견 및 탐색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재 외, 2015: 201).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중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와 시설 내 처우(소년원)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소년원에 재원 중인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교육은 소년원 내의 기본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박성훈 외(2017)의 연구에서는 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을 대상으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소년원에 바라는 교육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1순위 및 중복응답 결과에 따르면, 1순위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제외하면 2순위와 중복응답 결과 1위는 ‘미래에 대한 꿈/목표 정립 교육’이었고, 그 다음이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원 재원생뿐만 아니라 출원생의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박성훈 외, 2017: 31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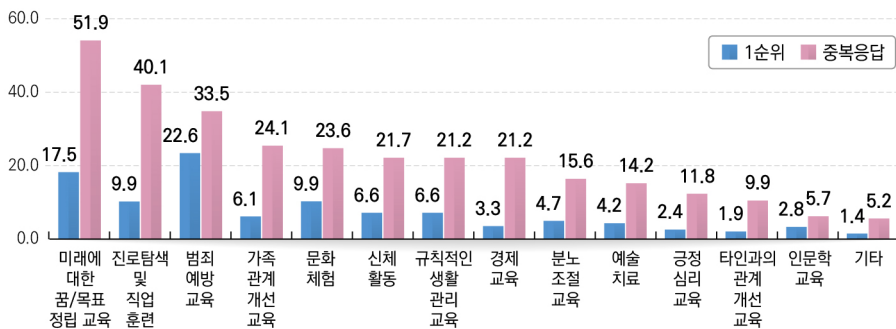


그림 II-10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소년원에 바라는 교육내용 (단위: %)

출처: 박성훈 외(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 p. 312.

3. 요약

지금까지 소외계층 집단별 세부유형과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를 살펴보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별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세부 유형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지적장애 학생(약 70%)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53.8%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청소년(「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 중도입국청소년(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 외국인근로자자녀, 탈북청소년(「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등으로 구분	- 학교부적응 유형: 수업·학업 부적응, 정서적 부적응, 인간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형 부적응, 공격성 부적응, 획일적 학교제도 거부형으로 구분 - 학교 밖 청소년은 경험 사건 분류를 통해 구분: 학업, 직업, 무업, 비행, 무정(혼재)
특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사회·환경적, 인지적, 행동적, 학습적, 발달적 특성이 상이함 - 최근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 경증장애에 비해 중증장애 학생의 진학, 취업이 어려워 이들을 위한 전환준비 지원이 요구됨 -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부정적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위축, 소극성, 높은 불안감 및 긴장감 등의 공통적 심리 특성을 보임	- 공통 특성: 낮은 학업성취, 기초학력 부족, 낮은 자존감, 우울 및 스트레스, 자기이해 부족 및 정체성 혼란, 그 외 취약한 가정환경 - 차이점: 차별과 편견, 한국사회 이해 부족,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탈북청소년)	- 빈약한 사회적지지(가족해체, 부모방임, 무관심 등),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불규칙한 생활습관, 낮은 학업성취, 학습의욕 등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 둔 이유(비행,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또는 부적응), 그만 둔 당시 연령, 가족배경 및 부모지지 여부에 따른 특성이 상이함

구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요구	• 주요 진로고민: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름,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름 등 • 중요한 진로직업교육 목표 1순위(교사): 독립적·상호의존적 일상생활 능력함양 • 중요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1순위(부모): 대인관계기술 ≧일상생활 기술 ≧의사소통 기술	• 낮은 진로의식 수준. 진로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높은 진로장벽 • 부모의 낮은 진로관련지식,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 • 주요 진로고민: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름,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름 등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에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의 어려움과 진로 찾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진로결정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준비에 대한 요구가 컸고,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발견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제Ⅲ장 소외계층 진로·직업 교육 정책 현황, 한계점 및 개선 방안

- 1.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
교육 정책 현황
- 2.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
교육 관련 한계점 및 개선
방안
- 3. 요약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 한계점 및 개선방안¹³⁾

1.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여기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정책 현황을 관련 법,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진로교육 관련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¹⁴⁾

(1) 관련 법

「특수교육진흥법」(1977~2008)에서는 직업교육, 전공과 설치, 진로교육에 관한 조항이 별도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이 통합되어 그 내용과 범위가 제시되어 있고(제2조),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산하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도록

13) 이 장은 김정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4) 이 내용은 박희찬(2016)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또한 전공과의 설치 목적을 진로와 직업교육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24조)한 것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표 III-1 특수교육 관련법 중 진로·직업교육 내용

종류	내용
특수교육 진흥법 (1977. 12.31. 제정 2008. 5. 폐지)	- 제20조(직업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 제21조(전공과의 설치) 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2조(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2008. 6. 12. 제정)	- 제2조(정의)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8. 8. 2. 인출

(2)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현재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이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진로·직업교육 정책 중에서,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확대 정책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민호·김삼섭, 2010). 또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통해 현장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다(박영근·윤형진, 2015). 전공과의 확대로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을 심도 있게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전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경험 확대 및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영근·윤형진, 2015).

표 III-2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종류	내용
제1차* (1998~2002)	• 장애인 교육/복지/고용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 장애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 노동부에서 특수학교 전공과 20개 지정, 훈련필수시설, 훈련장비 및 도구, 실습재료비 등 지원
제2차 (2003~2007)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전환교육 강화 •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계체제 구축 및 운영 • 학교교육과정에서 성인생활에 필요한 직업 및 전환교육 서비스 제공 - 개별화전환계획 모형 개발

종류	내용
제3차 (2008~2012)	•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체제 구축 -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공동 실시, 교수·학습 자료 공동 개발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일반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 중심 직업교육 확대 • 담당자의 자격기준 강화, 연수 확대, 지역사회 중심 직종개발 및 취업 알선 강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2009)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확대 •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직업평가, 지원고용 지원(공단)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 인정 •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 설치
제4차 (2013~2017)	• 특수학교학교기업 내실화,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연차 확대 • 전문대학과 연계한 취업·창업지원 확대: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복지 일자리 사업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유관기관 간 협력 운영 • 진로·직업교육 성과지표 적용, 취업률 40% 달성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방안 (2015. 1. 6.)	• 지역사회 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 확대: 위탁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취업·창업교육 확대, 학부모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 특수학교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 운영 내실화 • 취업·창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전공과 확대 • 유관기관 연계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 체계화,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기업체와 협력 구축, 문화체육 일자리 발굴 • 성과관리 강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 사회적 배려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 배치유형별, 학교급별 특성 감안한 진로정보 제공 -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제5차 (2018~2022)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자유학년제 확대 추진 • 진로교육 집중학기(년) 도입, 실무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실 조성 •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방안 (2018. 3.)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시 - 학생 신분으로서 3개월 이내(수업일수 1/3범위 이내) 기간 참여 -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채용시기 탄력적: 동계방학 전 취업 가능) - 직업능력평가비 및 현장 실습비 지원

종류	내용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방안 (2018. 7. 2.)	• 대학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 컨설팅, 현장중심 직무훈련 실시 • 지역사회 중심(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보건복지부) 연계 일자리,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위탁교육 등 • 고용 확대 기반 구축: 원스톱 협의체 운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확대

* 제1차 계획은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서 장애인 교육 분야로 발표되었으며, 제2차 5개년 계획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으로 발표됨.

출처: 제1차~제2차 계획은 박희찬(201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pp. 63~65 참조; 교육과학기술부(2008. 8.).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교육부(2013. 8.).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15. 1. 6.).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을 향상을 위한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 교육부(2017. 12.).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2018.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교육부(2018. 7. 2.).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교육부 보도자료.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급 설치 일반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 제공
- ※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 현장실습 확대 및 취업을 향상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훈련실을 설치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 제공
- ※ 각급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 희망일자리(고용노동부): 교육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개선 및 장애인의자립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이 수행 가능한 직무에 배치하여 직업교육 실시
- ※ 특수교육복지일자리(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한 유형. 특수교육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고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이 사서보조, 급식지원, 교무보조 등 직무 수행)

제III장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한계점 및
개선방안

2) 이주배경청소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다문화학생 및 북한이탈 주민학생 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균등한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제공 강화,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기회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북한이탈주민학생의 경우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하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표 Ⅲ-3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세부과제	내용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 진단 및 처방을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발·보급('16)
	• 담당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진로정보 제공 강화('16)
	• 학부모의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소식지(드림레터)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앱('맘에 쏙 진로') 별도 코너 신설('17)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상담, 진로체험 기회 제공('16)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북한이탈 주민학생 • 북한이탈주민학생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16)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다문화 학생 • 이중언어 능력·문화 등 다문화학생의 장점을 살려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진로·진학상담자료 개발·보급('16)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브릿지 사업 강화*('16년 17개 사업단) * 언어, 수학과학 등에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에게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

출처: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 pp. 14-15.

이와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정책들은 대상 집단별 관계 부처의 지원계획 내용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탈북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교육부)'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가부)'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을 통해 진로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탈북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간에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진로교육 관련 매뉴얼(학교진로상담 매뉴얼)이 개발 및

보급되었고, 멘토링 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HOPE, 글로벌브릿지)이나 글로벌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선별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폴리텍다솜 학교와 한겨레 중고를 통해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제도나 취학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진로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표 III-4 탈북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매뉴얼	- 탈북학생 대상 진로교육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학교진로상담(지도) 매뉴얼,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등	교육부
맞춤형 멘토링	- 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멘토링 지원 - 대학생 선배·또래 멘토, 재능기부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부, 통일부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	-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프로그램(HOPE)운영 - 인문·과학수학, 예술체육, 직업 분야에서 학생전문가 간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진로캠프 등 지원	교육부
리더양성 프로그램	-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 한·미 취업연수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OKF공공외교단 캠프 등 참여 지원	교육부, 통일부
진로직업캠프	- 일반학교 재학생 대상 진로·직업캠프 실시 -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진로·직업캠프 실시	교육부
학교 지원	- 탈북학생 특성화학교 진로·직업교육 지원 -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시설 및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9개 분야) 운영	교육부, 통일부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탈북청소년 진로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운영	통일부
교육과정 개설 운영	- 탈북대학생 대상 예비대학과정 개설 운영 -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지원 제공	통일부
학비 지원 및 특례입학	- 학비 지원 및 특례입학 허용 - 대학 진학 시 정원 외 특례입학, 대학등록금 지원	통일부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부모교육	- 하아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실시 - 학교 선택, 교육제도, 취학절차, 부모 역할 등 진로교육 실시	교육부, 통일부

출처: 교육부(2017. 3. 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p. 2.;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b).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2014a). 탈북 중학생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2014b). 탈북 고등학생 직업교육 매뉴얼; 통일부(2018. 4. 2.).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p. 17~22.; 남북하나재단(2017.6.2.). 2017년 탈북청소년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안내문.

이외에도 탈북청소년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일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캠프가 실시되고 있으며, 통일부를 주축으로 탈북청소년 진로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진학과정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예비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출생지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학 진학 시 특례입학 및 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담당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멘토링 이외에도 원격영상으로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지개 Job아라’ 및 ‘내일을 잡아라’ 등의 진로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탈북청소년도 일부 대상에 포함되어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과정,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 밖에 다문화청소년 중심의 진로체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진로활동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5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매뉴얼	•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부
교원 역량강화	•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실시	교육부
맞춤형 멘토링	• 대학생과 연계한 기초학습, 진로지도 다문화멘토링	교육부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내용	담당부처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	- 글로벌브릿지를 통한 우수 다문화학생 발굴 및 교육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리더양성 프로그램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외교부 KOTRA
진로 멘토링	-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 멘토링	교육부
진로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무지개 Job아라’ 프로그램 운영 (진로탐색, 진로설계과정)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 운영(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정) - 권역별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여성가족부 , 교육부
학교 지원	- 직업교육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습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 일반고 진학 다문화학생에 대상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지정기관 운영 - 다문화청소년 취업사관학교(내일이름학교) 운영	고용노동부 , 교육부, 여가부
부모교육	- 학부모 진로관련 안내자료 발간 - 중도입국자녀 학부모 대상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교육부

출처: 교육부(2018. 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6.; 여성가족부(2018.3.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pp. 19-22.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계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집단별로 살펴보면 탈북청소년의 경우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교육부와 여가부,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 학교부적응 학생

① Wee 프로젝트

Wee프로젝트의 주요 지원 대상에는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포함된다. Wee프로젝트는 3단계 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하는데, 세 가지 안전망에는 1차 안전망으로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2차 안전망인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Wee 센터, 3차 안전망은 시·도교육청 차원에 설치된 Wee 스쿨이 포함된다.¹⁵⁾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의 3단계 안전망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 및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들은 다양한 상담, 진로개발 및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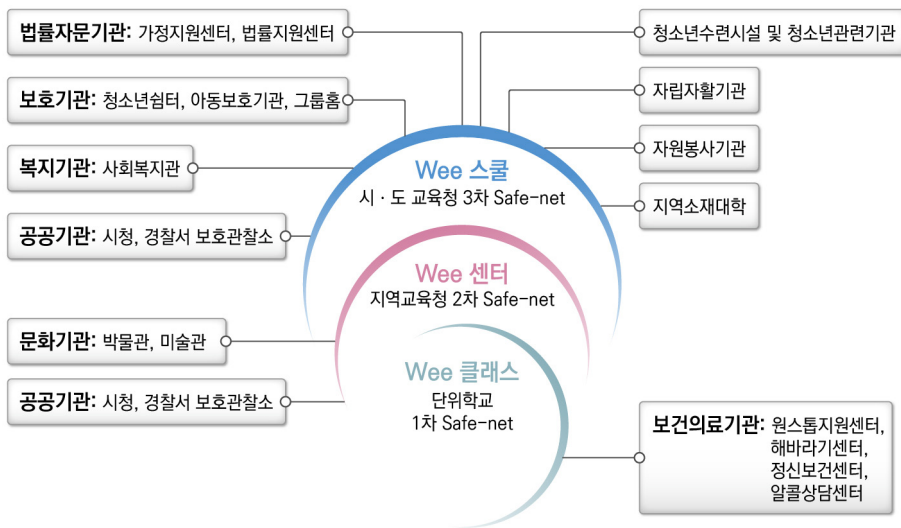


그림 III-1 Wee 서비스 네트워크

출처: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wee.go.kr/home/intro/intro02001v.php>에서 2018. 8.10. 인출.

15)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Wee 안내내용. <http://www.wee.go.kr/home/intro/intro02001v.php>에서 2018년 8월 9일 인출.

② 위탁형 대안학교·대안교실

우리나라 대안학교 유형에는 공교육제도에 편입된 인가형 대안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정규학교에서 위탁한 학생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탁형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이혜영 외, 2013: 131).

위탁형 대안교육은 3~5일 또는 2주 정도로 운영되는 단기 위탁과 1개월~3개월 또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 위탁으로 구분된다. 단기 위탁의 경우, 상담, 체험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위탁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 위탁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이혜영 외, 2013: 131~132).

단기 위탁교육은 대안교실이나 대안교육시설, Wee센터,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며, 장기 위탁교육은 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경우에 따라서는 Wee스쿨, 공립형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실 등에서 이루어진다(이혜영 외, 2013: 132~133).

(2) 학교 밖 청소년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보다는 주로 직업체험, 직업훈련 등 취업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II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진로·직업지원 내용

내용
•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제III장

소외계층 중 진로·직업분야
정책·현행·향후·한계점 및
개선방안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술 습득과 직업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과 내일이룸학교간 연계를 통해 전문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창업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학업, 직업, 무업, 비행, 은둔형)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표 III-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내용

내용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3.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한 진로 체험활동 강화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 3.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pp. 47~48.

②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 자립지원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원 사업

종류	내용	담당부처
내일이룸 학교	•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제공→자립역량 제고→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 • 2018년 현재 전국 16개 학교 지정 운영 • 기계가공조립, 간호조무사과정, 바리스타, 뷰티아티스트양성과정, 조리사과정, 트리밍3급과정/반려동물관리사, 드론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애견스타일리스트, 초급 사무관리 양성과정, 제과제빵과정, 헤어, 피부미용 양성과정 등	여성가족부
직업역량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취업 연계 이전의 기초기술습득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전국 8개 꿈드림센터(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대전)) •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1주)→자립동기 부여(2주)→기초기술훈련(4주)→직장체험(3개월)→전문직업훈련/취업연계 →사후관리 * 기초기술훈련, 직장체험 기간 동안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증취득반 병행가능	여성가족부
취업성공 패키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 취업지원체계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취업성공패키지 II (만18세~64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인턴제	•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sub05_3_1.asp에서 2018. 8. 10. 인출

제III장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한계점 및
개선방안

2.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관련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여기에서는 소외계층 집단별로 진로·직업교육 관련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이 절의 주요 내용은 소외계층 집단별 주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진로·직업교육 관련 한계점과 개선방안은 진로교육 목표 및 방향, 진로교육 콘텐츠, 진로교육 교수방법,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진로교육 여건 개선의 4가지 항목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림 III-2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한계점 및 개선방안 분석틀

1) 특수교육대상학생

(1) 진로교육 목표 및 방향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생애단계별 맞춤형/개별화 진로교육 목표 수립 및 진로정책 다양화
 - 현재 특수교육 내 진로교육은 경도장애 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대책이 시급하다.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발달단계는 일반학생의 진로발달단계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즉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장애 정도에 따라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를 차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i) 졸업 후 보호가 필요한 학생, ii) 보호와 일정 수준의 활동이 가능한 학생, iii)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학생, iv) 일반적 기준의 근로가 가능한 학생, v)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등.
- 또한 현행의 개별화교육계획 내에 개별화전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 이후의 성과를 설정하기 위해 중등 과정에서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미래 성과와 개별화교육계획의 장단기 목표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졸업 후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방향 설정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진학자와 취업자수가 약 55%에 이르지만 비진학·미취업자 수도 약 45%에 이른다.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III-9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연도별 진로 현황

학생수 연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			취업자수 (%)				비진학·미취업자수 (%)		
	고교	전공	계	고교	전공	소계	고교	전공	취업 률	소계	고교	전공	소계
2015	7,111	1,868	8,979	3,345	13	3,358 (37.4)	1,051	659	30.4%	1,710 (19.0)	2,715	1,196	3,911 (43.6)
2016	7,443	2,039	9,482	3,444	27	3,471 (36.6)	975	719	28.2%	1,694 (17.9)	3,024	1,293	4,317 (45.5)
2017	7,734	2,052	9,786	3,582	13	3,595 (36.7)	1,027	820	29.8%	1,847 (18.9)	3,125	1,219	4,344 (44.4)
2018	7,811	2,252	10,063	3,668	20	3,688 (36.7)	1,006	970	31.0%	1,976 (19.6)	3,137	1,262	4,399 (43.7)

* 출처: 교육부(2015, 2016, 2017, 2018). 「특수교육통계 각 년도」.

- 취업·창업 위주의 기능·기술교육이 아닌 다양한 진로 방향 제시
 -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은 주로 기술·기능교육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그보다는 이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자립 방법, 다양한 진로 설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진로교육 콘텐츠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 그 동안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은 발달장애¹⁶⁾ 영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왔기 때문에 장애영역 중에서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특히 중증장애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의 진로가 불투명하여 진로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진로개발을 위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 부모교육 콘텐츠 부족
 - 부모의 자녀 진로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의 자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정 직종 및 기능 중심의 콘텐츠 과잉→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콘텐츠가 특정 직종과 기능 위주(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 이처럼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진로 결정 및 취업 이후 고용의 지속가능성에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16)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비롯하여 통상적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학생(교육부, 2017).

-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 부족
 - 기 개발된 진로교육 콘텐츠를 직업분야 및 기능별, 장애영역 및 수준별로 종합적으로 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수요자의 콘텐츠 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진로교육 교수방법

- 진로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 2018년부터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전담교사 배치로 인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수학급의 경우 통합학급 교사의 관심 부족으로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진로전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개별화/맞춤식 교육, 장기교육, 산학연계 및 현장/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현재 진로교육은 대부분 학급단위와 집체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기적, 일회성의 진로체험으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 학생 개인별 전환계획이 전제된 장기교육, 현장 및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특수학교에서는 교과(군)별 3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운영이 가능하므로 학생의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되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과정 운영 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현실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진로·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진로체험처 확대
 - 특수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체험처 확보가 제

한적일 뿐만 아니라 진로체험의 질 역시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도 양질의 진로체험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학생들이 누리는 진로교육 기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도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취업 후 추수지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업 적응 및 안정적 직업유지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취업 후 직업안정 시기(취업 후 2년)까지 추수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지역 거점 직업/취업 지원 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지원센터 등)를 지정, 직업지원 코디네이터(가칭) 등을 배치하여 취업 적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업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취업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여건 개선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개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진로교육 협의체 구축
 -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진로교육 협의체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개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통계조사 및 자료 확보
 -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특성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진로 목표와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는 특수교육통계 조사를 통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시대적 상황(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 증가,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에 부합하는 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제거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인식 개선
 -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주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또는 장애인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민간 기업체, 대학,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계적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체계적 진로·직업교육 실시(교육부),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교육부, 고용노동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 다양화(진학, 보호, 취업 등)를 위한 협력(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유지 및 고용 개선(교육부, 고용노동부)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

(1) 진로교육 목표 및 방향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직업교육은 일반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과 공통된 틀 내에서 실시하되, 교육 기회 확대(affirmative action) 측면에서 분리교육으로 접근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직업교육은 통상적으로 낙인 문제와 역차별 문제를 초래한다. 낙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틀 내에서, 즉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이들이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소외계층이란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술·기능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교육 목표와 방향 설정 필요
 - 기술·기능 중심의 교육내용을 탈피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언어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고려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생의 능력과 자질, 잠재역량을 고려한 진로설계와 다양한 진로지원
 - 학생 자신의 잠재능력과 자질을 등한시하고 명문대 진학 위주의 진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진로교육의 방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의 능력과 자질, 잠재역량을 고려한 진로설계에 두고, 대학진학 외에 다양한 진로탐색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진로교육 콘텐츠

-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능력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및 영상 제작 확대
 - 현재 대다수의 진로교육 콘텐츠는 내국인 청소년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이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영상만으로도 진로교육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영상에는 쉬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 내 다양한 배경 및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은 이주배경청소년 내 다양한 배경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 향후 한국 입국 전 체류국가,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연령 및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한 진로, 직업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자기이해, 직업이해, 기초능력 및 기본소양교육,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특정 직업군(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한정된 기술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기능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진로·직업교육이 아니라, 자기이해, 직업이해, 기초능력 및 기본소양교육, 언어교육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학부모참여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대(다언어 번역 필요)
 - 자녀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무관심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시에 학부모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의 모국어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진로교육 교수방법

- 학습자 주도교육, 개별화 교육, 중장기적 진로교육으로 변화
 -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단순 정보를 전달하거나, 집체식 교육, 일회성의 이벤트성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 향후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의 활동 중심의 교수방법, 1:1 개별화 교육방법, 중장기적 목표와 내용이 전제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진로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추가적인 인력 양성 고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유형에 따라 대입전형이 다양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도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조건이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교육 전담인력의 경험, 의지 등의 차이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진학과 취업준비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 내 진로교육 전담인력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직업교육은 주로 NGO/NPO 단체들이 맡고 있어서 진로 전문성을 지닌 담당자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진로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개발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주배경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추가적인 진로교육 인력 양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이주배경 출신자를 진로교육담당자로 양성하면 일종의 모델링이 가능하고 공감에 기반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어 고려할 만하다. (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이주민 출신 교사양성 사업 시행 중)

(4)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여건 개선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체계적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육부 내 과별 협업,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학교 재학 이주배경청소년과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을 구분하여 진학,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국 시·도교육청의 진로진학센터(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와 지역다문화교육센터(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의 연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진로교육과 취업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게 하는 노력이 필요(취업가능 기업 및 기관 확보, 자원공유 등)하며, 지역 내 진로교육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 또는 공동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별 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모델 구축 및 적용
 -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지원 관련 자원이 있지만 공유되지 않고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기관들 간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협업과 자원 공유가 필요하다.
 - 현재 다문화가정자녀, 탈북학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Top-down식의 획일적 정책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모델 발굴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일반시민 대상 인식개선 및 제도적 개선 노력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반시민 대상 인식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근로 현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에 있어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별로 진로교육 인프라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비스 수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예컨대 경기도 안산 지역의 경우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 후 적응, 진로진학 지도 등을 다양한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안정적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체류자격 등의 문제로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진로교육은 장기플랜을 가지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자 문제로 수개월 또는 해마다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진로탐색, 취업준비 등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로설계 및 안정적 취업활동, 구직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주여건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을 안정화(비자 연장 고려)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3)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 진로교육 목표 및 방향

- 진로목표 및 진로교육 방향의 다양화 필요
 -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목표와 방향은 대체로 대학진학, 단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 둔 이유가 다양하고, 이들의 진로유형도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또한 연령 및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방향 설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술한 요소를 고려한 진로목표 및 진로교육 방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목표의 다양성이 반영된 성과지표 개발
 - 상술한 문제점과 연계된 것으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성과지표가 검정고시합격자수, 대학진학자수 등으로 다소 획일적이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목표 및 방향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러한 다양한 진로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진로교육 콘텐츠

- 학교부적응 유형 및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부적응 유형은 수업 및 학업, 정서, 인간관계, 규칙 위반, 공격성, 획일적 학교제도 거부 등 다양했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업, 취업, 학업과 취업 병행, 무업, 비행 등 복합적이다. 그런데 현재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유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 예컨대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따라 학교복귀 전 학교(학업)와 관련된 트라우마(학업공포, 학교폭력, 교우관계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는 과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고졸검정고시 과정을 마친 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강점,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탐색 및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직업군 발굴 및 관련 정보 콘텐츠 제작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기능교육이 주를 이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직업군 발굴이 필요하며, 직업군 관련 정보를 담은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중, 특히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부모들은 생계문제로 인해 자녀 진로지도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 진로지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3) 진로교육 교수방법

- 진로교육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우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학교 내 대안교실’ 업무가 기피업무이다 보니 매년 담당자가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당자가 매년 교체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매뉴얼의 부재는 담당교사의 전문성 발휘를 더욱 어렵게 한다. 담당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않은 상황에서 사업은 일회성 행사 위주, 보여주기식 사업, 또는 예산 사용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꿈드림’의 경우 상담 베이스의 인력 구성과 배치로 인해 진로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 진로상담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진로·직업교육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로관련 네트워크 개발이나 프로그램 기획, 현장과의 소통이 가능한 진로교육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 소규모 또는 개별화교육, 학습자주도의 참여중심의 교육 필요,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 진로·직업교육이 주로 집체식, 교수자의 일방적 정보전달, 일회성 및 단기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습자 주도의 참여 중심, 개별화된 교육, 중장기적 관점이 반영된 진로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일반학생 대상 진로체험처 공유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체험 기회가 제한적이고 진로체험의 질 또한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일반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직업체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
- 추수지도 및 사후관리 담당인력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취업 후 취업적응 및 취업지원 등 추수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꿈드림 센터에서는 진로교육을 전담하거나 추수지도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4)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여건 개선

- 학교 안·밖의 진로교육 연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 구성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의 정보가 꿈드림 센터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로교육이 연계되기는 어렵다.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진로교육 내용이 꿈드림 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진로·직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민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로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학교부적응 및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협력
 - 학교부적응을 통해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뿔뿔이 흩어진다.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무업형(NEET) 비율)
 - 이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 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지역교육청-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연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관찰 및 소년원 퇴원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정보 공유 및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권 교육 개혁
 - 근본적으로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권 교육을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전히 교사주도,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이 제도권 교육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권 교육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 외에 제도권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3. 요약

지금까지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진로·직업교육 한계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현황
특수교육대상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3조, 제24조 등 •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교육부 2009) • 장애학생 취업 창업교육 강화방안(교육부 2015)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2016~2020)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방안(교육부 2018. 3.)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방안(교육부 2018. 7.)
이주배경청소년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2016~2020) •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통일부 2018~2020) •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교육부 2017. 3. 24.) •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2017. 2.)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 3.6.)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Wee 프로젝트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8.3.6.)

제3장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정책 현황·한계점 및
개선방안

다음으로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목표 및 방향	• 특정 장애유형 및 정도에 편중된 진로정책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생애단계별 맞춤형/개별화 진로교육 목표 수립 및 진로정책 다양화 • 학교졸업 후 성공적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직업교육의 낙인 및 역차별 문제 → 통합교육을 전제로 하되, 교육 기회 확대(affirmative action) 측면에서 분리교육 실시	• 진로목표 및 방향의 확실성(대학진학, 단순 기술습득) → 진로목표 및 방향의 다양화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성과지표(검정고시합격자수, 대학진학자수

진로교육
콘텐츠

진로교육

구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전환(transition)지원 불가 → 성공적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진로교육 방향 설정 취업·창업 위주의 직업교육 → 다양한 진로 방향 제시 필요	- 단기간에 가능한 단순 기술 및 직업 획득에 초점 →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교육 목표와 방향 설정 필요 -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은 진로설계 → 잠재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지원	등)의 획일성 → 진로교육 목표의 다양성이 반영된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다양한 콘텐츠 부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부모교육 콘텐츠 부족 → 부모의 자녀 진로인식 제고 콘텐츠 개발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부모에게 역할 부여) - 특정 직종 및 기능 중심의 콘텐츠 과잉(예: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진로교육 콘텐츠에 대한 낮은 활용률 → 진로교육 콘텐츠 분야별, 수준별, 기능별 장애영역별 콘텐츠 체계적 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콘텐츠 활용률 조사	-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 능력을 고려한 콘텐츠 부족 → 언어능력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및 영상 제작 확대 - 이주배경청소년 내 다양한 배경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 체류국가,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직업교육 초점 → 다양한 진로, 직업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자기이해, 직업이해, 기초능력, 기본소양, 언어교육 강화 - 학부모참여 콘텐츠 부족 → 학부모참여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대(다언어 번역)	-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부족 → 학교부적응 유형 및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직업군 정보 부족 → 직업군 발굴 및 관련 정보 콘텐츠 제작 - 부모교육 콘텐츠 부족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진로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교사중심의 일방적 단순정보 제공, 일회성 및 이벤트성 체험 중심의 교육 → 학습자 주도,	진로교육 전담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진로교육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구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교수방법	• 학급단위, 집체식, 일회성, 단기교육 → 개별화/맞춤식 교육, 중장기교육, 산학연계 및 현장/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부족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 강화 • 진로체험처 확보의 어려움 → 진로체험처 확대 • 취업 후 적응 및 안정적 직업유지에 대한 성과 미흡 → 취업 후 추수지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 관리	• 개별화 교육, 중장기적 진로교육으로 변화 • 진로교육 담당인력 부족 및 담당자 이해 부족 → 진로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추가적인 인력 양성 고려	• 집체식,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 일회성, 단기교육의 문제점 → 소규모 또는 개별화교육, 학습자주도의 참여중심의 교육 필요,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 진로체험 기회 부족 → 일반학생 대상 진로체험처 공유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취업 후 추수지도 및 사후관리 인력부족 → 추수지도 및 사후관리 담당인력 확보
 진로교육 전달체계 및 여건개선	•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 개별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협의체 부재 →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진로교육협의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부족 →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통계조사 필요 •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및 차별 →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제거(제도적 개선, 지역사회 내 사업체 인식 개선)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총괄 시스템 부족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 부처 간, 학교 안팎의 유기적 협업 및 연계 미흡 → 교육부 내 과별 협력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Top-down 방식의 정책 → 지역별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모델 구축 및 적용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 일반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차이 →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 정주여건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진로설계의 어려움 → 안정적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을 위한 여건	• 학교 안·밖의 진로교육 연계 단절 → 국가운영 정보망을 활용한 학생 개인별 진로교육 이력 관리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 구성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차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 •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파악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협력 •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권 교육 개혁

구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고용기관, 직업관련 시설/산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부족 → 진로 방향에 따른 지원 체계화(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협업)	조성(예: 비자 연장 고려)	

제III장

소외계층 진로·직업교육
정책·연구·협력·강화·계몽·개선
방안

제Ⅳ장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1.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 2.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¹⁷⁾

1.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소외계층 집단별 세부유형과 현황, 특성 및 진로요구(Ⅱ장),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직업교육 한계점 및 개선방안(Ⅲ장) 등을 토대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세부과제를 살펴보기 전에,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 방향

1. 선별지원 방식 → 통합지원 방식의 진로교육 지원
2. 결핍에 대한 지원 → 잠재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
3. 기술·기능교육 중심의 진로교육 → 진로자립 역량 강화 진로교육
4.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지식전달 → 학습자 주도의 활동참여 중심 진로교육

17) 이 장은 김정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은 주로 그들을 일반학생과 분리하여 선별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일반인들에 비해 우선되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 방식이 지닌 장점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방식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진로지원은 일반 학생과 동일한 틀 내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되,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만 선별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은 주로 이들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어 결핍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각자의 강점(strength)을 가지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일반 학생보다 부족하거나 결핍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잠재역량을 지닌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은 이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잠재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주로 단기간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단순 기술기능교육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 중심의 직업 훈련 교육은 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이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이 주로 교수자 주도의 일방적 지식 전달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외계층 진로교육 담당자들의 교수학습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는 4개 영역에 대해 10개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일부 정책추진과제에서는 각 세부과제를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본 과제에서 제시한 정책 추진과제의 근거 및 내용은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 정책추진과제 도출의 근거와 내용

문헌 분석 및 정책 분석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정책추진과제 도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진로지원(진로체험 기회 부족)에 비해 턱없이 부족 • 특수교육대상자중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 • 이주배경청소년 중,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사회적 지원 체계 부족), 중도입국청소년(언어적, 문화적 적응 어려움)에 따른 진로요구수준이 상이함 •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각 유형에 부합하는 지원 필요 • 소외계층 학생들은 진로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진로결정을 했더라도 진로준비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 소외계층 학생들은 장애,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기간에 가능한 단순 기술 및 기능교육 중심의 교육 지양	→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확대 → 소외계층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필요 → 집단별 특성 및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자기이해, 직업이해, 진로기초역량 교육 실시 필요 → 다양한 직업군 정보 제공 필요 → 진로목표 및 방향의 다양화 필요 →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

전문가
자문
조사

- 학교교육에서 성인기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목표 수립 필요
- 부모교육 콘텐츠 부족
-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직업교육의 한계
- 진로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진로교육 담당자 부족
- 진로교육 교수방법 개선(집체식, 일회성, 단기교육→ 개별화/맞춤식, 중장기교육, 현장/활동중심 교육으로 변화)
- 취업 후 추수지도 지원 부족
- 장애학생들의 개별 진로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부재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부족
-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학교 안팎의 유기적 협업 부족
- 학교 안팎의 진로교육 연계 단절
-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문제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교육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부족
-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부처간 협력
- 장애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필요

→

학부모 참여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진로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진로교육 전담인력 확충

→

진로교육 교수방법 개선

→

추수지도 및 사후관리 지원 필요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필요

→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개선

→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

소외계층 학생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 내, 부처 간 협력 강화

추진 전략	세부 과제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제공	1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확대 2 소외계층 집단 내 진로교육 사각지대 지원 강화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내실화	1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 및 요구 반영 맞춤형 진로교육 2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 3 소외계층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인프라 강화	1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2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환경조성	1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2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소외계층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림 IV-1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2.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추진전략 1 |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1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확대

1) 제언 배경

소외계층 학생들이 균등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특수학교에 진로교육 전담교사가 배치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진로 전문성을 지닌 교사에 의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진로교육을 제공받고 있지만, 진로교육 전담교사들이 다문화 및 탈북가정,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 전반의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 않아 이들의 잠재능력과 요구수준을 반영한 체계적인 진로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학교 밖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NGO/NPO 단체의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진로교육 여건의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안 학생들에 비해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이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세부 과제

1-1-1.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집단 모두의 주된 진로고민은 ‘자신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2016b, 2016c; 최인재 외, 2015). 즉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그 후 체계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생 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고려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학진학 외에 다양한 진로경로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련 진로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단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그들의 특성과 진로요구가 반영된 직업정보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직업이해, 진로체험, 진로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중 고3 또는 전공과 재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진로박람회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수준, 가족유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진학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된 진로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로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개발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아울러 확보된 진로관련 정보를 소외계층 집단에게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진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와 그것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주체를 고려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특수교육대상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위한 지원센터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센터에서는 진로교육 및 직업지원에 특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이들 기관들이 진로·직업 관련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인력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진로교육 지원센터가 연계 협력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1-1-2.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

앞서 언급한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와 유사한 맥락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업무는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가 맡고 있는 반면, 일반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업무는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과에서 맡고 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이 일반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과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특화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체험처는 일반학생들의 진로·체험처와 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들의 진로탐색 역시 향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진출가능한 직업분야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분리 운영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별도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경증장애 학생이나 지적장애를 제외한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진로·체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진로체험처 발굴이나 활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체험을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의 기회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소외계층 집단 내 진로교육 사각지대 지원 강화

1) 제언 배경

소외계층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집단 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중증장애 학생들이 해당하였고,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도입국청소년이 해당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비행경험이 있는 집단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 내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 세부 과제

소외계층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IV-2 소외계층 집단 내 진로교육 취약집단

기본 방향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장애학생	중도입국청소년	비행경험 집단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진로 교육 지원 범위 확대	- 중증장애학생의 개별화 전환계획 수립 - 중증장애학생 대상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공교육 진입 문턱 낮춤 - 예비학교 연계 - 안정적 진로준비활동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	비행경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우선 특수교육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경증장애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수 개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이들의 고등학교 및 전공반 졸업 후의 성인기 전환 준비를 위한 전환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는 저연령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공교육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교육에 대한 제도적 진입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도권 교육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학업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예비학교(또는 찾아가는 예비학교 서비스 제공)를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연령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만 20세가 되면 비자가 만료되어 다시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므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기실 국내 학생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만 20세까지 취업을 통해 스스로 비자 연장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 진로준비활동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비자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 비행경험이 있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및 소년원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

상 학생들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주로 학교를 자퇴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진로설계나 진로준비에 취약하다.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사범의 경우, 소년원에 재원하고 있는 동안 기본교육 과정을 통해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을 받고 있지만(박성훈 외, 2017: 44), 진로탐색과 진로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재원 기간 동안 기술기능 교육(바리스타, 헤어미용, 제과제빵 등)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 집단 내에서도 이들 집단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전략 2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내실화

1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 및 요구 반영 맞춤형 진로교육

1) 제언 배경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들의 잠재능력 및 진로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지원이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지원 내실화는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과 진로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가능하며, 이들의 발달단계와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이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성인기 이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된 기초역량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세부 과제

2-1-1. 진로 기초역량 교육 실시

소외계층 관련 전문가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 학생들이 진로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진로탐색과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등 진로 관련 기초역량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IV-3 진로관련 기초역량

진로관련 기초역량	
• 자기이해 • 자기조절 및 자기관리 능력 • 내적동기	• 책임감과 성실성 • 협력적 태도 및 공동체 역량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전문가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자기이해, 자기조절능력, 자기관리능력, 내적동기 강화, 책임감과 성실성, 타인과 협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태도,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술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진로탐색, 진로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취업 후 적응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즉 자신이 어떠한 성격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기능교육 중심의 직업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2-1-2.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세부유형과 특성, 그에 따른 진로요구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외계층 집단별로 진로교육 계획을 개인별로 수립하고 각 개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 진로요구, 실제 취업가능 여부 등에 따라 진로지원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이들의 발달과정에서의 특성, 즉 심리·정서적 특성이나 진로 관련 기초역량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한국출생인지 외국출생인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이나 탈북가정과 같이 부모로부터 진로 관련 지지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진로 멘토를 연결시켜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진로동기가 내재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비행 또는 부적응의 결과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에 따라 일차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구체적인 취업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후기청소년과 검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는 중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달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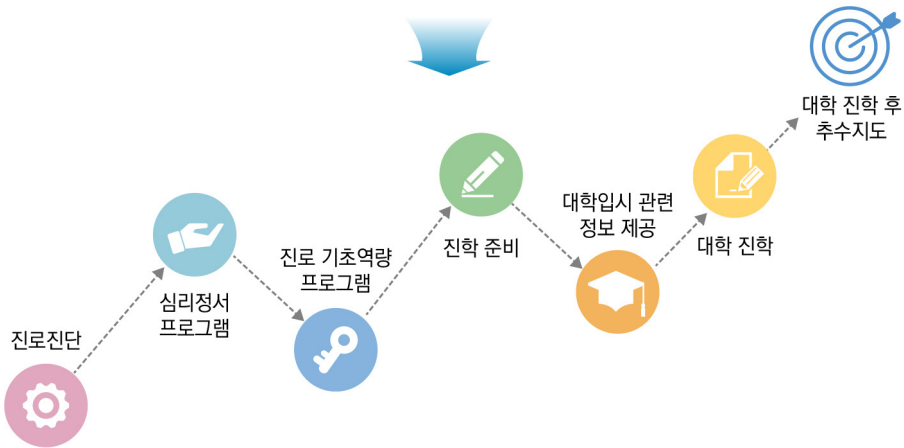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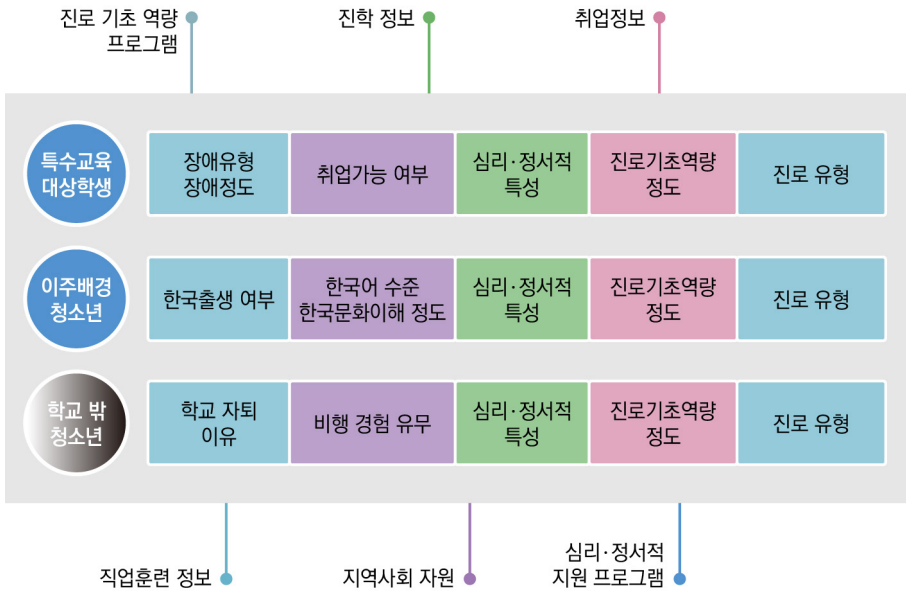


그림 IV-2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예)

2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

1) 제언 배경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외계층 진로교육은 단기적, 일회성 성격의 교육이 주를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은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별 진로교육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소외계층 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의 진로교육 목표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진로탐색과 진로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기적, 이벤트성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요구를 고려하여 그 안에서의 기초, 심화, 고급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학생들의 취업에 두기보다는 이들의 취업 후 적응과 안정적 정착에 두고 취업 후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 소외계층 학생들의 취업 후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취업 전 제공되는 진로교육을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취업을 유지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취업 후 지원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세부 과제

2-2-1. 중장기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현재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 단기성 체험이나 특강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진로결정에 따른 진로지원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

예,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진로요구 수준 또는 진로결정 수준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진로기초역량, 진로이해, 진로발견, 진로탐색,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기초-심화-고급의 3~4단계별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요구수준과 흥미,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으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심화학습과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단기성, 일회성 프로그램 운용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은 유기적으로 자신들의 진로설계와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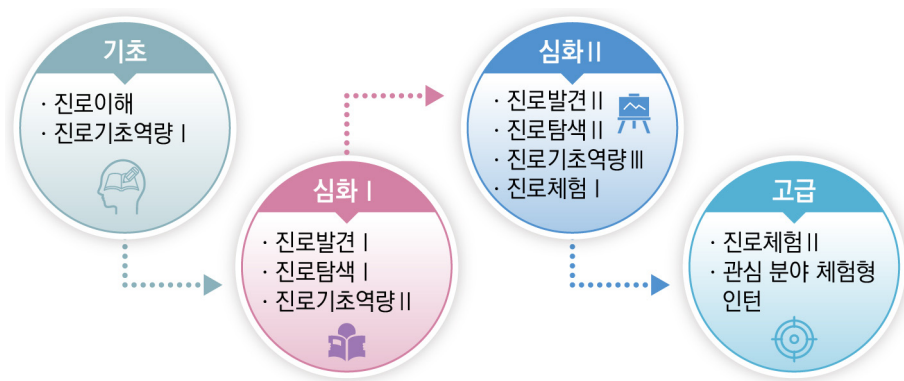


그림 IV-3 소외계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예)

2-2-2. 취업 후 추수지도 강화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문가들은 소외계층 집단의 취업 후 추수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에 이르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신체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규칙적인 생활태도 등을 익힌 후에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 신분일 때와는 달리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또 다른 역경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이 취업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추수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수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취업 후 짧은 시간 안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쉽게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의 취업 적응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 후 어려움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심리정서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외계층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1) 제언 배경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이 취업 후 겪게 될 어려움을 우려하여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강조하기보다는 졸업 후 자녀를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자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인식은 자녀의 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쉽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탈북청소년의 경우 대학진학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에서의 학업을 이수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학진학을 강요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밖 청소년 중 비행경험 청소년들의 부모 역시 자녀의 진로에 무관심하거나 생계문제로 인해 자녀 진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되지 않는 부모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자녀진로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진로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세부 과제

2-3-1. 학부모 동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일반학생 부모에 비해 소외계층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이해하고, 자녀의 진로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지 않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부족은 자녀 진로지도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소외계층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자녀의 적성과 진로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된 프로그램에 소외계층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 부모들 중 다수가 생계문제로 인한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면, 정부가 소외계층 부모의 자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3-2.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 및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 집단 학부모의 진로인식을 제고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모들은 자녀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해 자녀의 취업을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주배경청소년 부모들은 자녀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자녀 진로를 지원할 여건에 놓여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족해체로 인해 부모로부터 양육과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자녀 진로지원은 더욱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소외계층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 학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인데,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모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부모의 원국적을 고려하여 다언어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전략 3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인프라 강화

1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1) 제언 배경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진로관련 전문교사에 의한 충분한 진로교육을 받기 어려

은 상황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경우 2018년도부터 특수학교에 진로교육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진로교육의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학급 재학생들의 경우 진로교육 전담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수준이 부족하여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진로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나, 진로교육 전담교사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주로 NGO/NPO 단체들로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집단에 대한 경험과 이해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진로 전문성을 지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상술한 맥락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있고,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 및 소속 기관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 진로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 세부 과제

3-1-1.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해당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진로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를 확대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전담교사

가운데, 소외계층 학생들이 배치된 학교의 교사나 희망하는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소외계층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연수의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교육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각 집단별 진로교육의 지도 방안이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특수학교와 같이 소외계층 각 집단별 특화된 학교 및 기관의 경우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및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제 운영방안과 관련한 교육에 초점을 두어 연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은 전담인력의 근무상황이나 필요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진로교육 전담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식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호 간의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 네트워크 형태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호교수 방법으로 워크숍이나 사례발표회 형태의 연수를 강화하고, 일회성 연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 스스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1-2.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확충

전문가들은 소외계층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수준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에서 일회성 체험이나 집체식 교육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것도 전담인력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¹⁸⁾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

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에서 2018. 8. 6. 인출.

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데, 소외계층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경험이 있는 학부모나 각 집단별 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진로전담교사가 해당 집단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진로 교육 과정에서 학생 및 가정과의 가교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사대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소외계층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에 기초한 진로교육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교육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진로교육 전담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이주배경 출신자를 교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교육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질감에 기반한 신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을 교육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정수정, 최순중, 2015).

표 IV-4 해외 정책 사례(독일)

구분	내용
정책명	• 학생캠퍼스(Schülercampus)
도입배경	•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 확보
정책내용	•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의 교직 입문을 돕는 교육정책으로 사범대 교육과정 소개, 교직에 대한 정보 제공 -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교직에 요구되는 능력에 관한 정보 제공 - 우수교사들과 공동 작업, 면담을 통한 적성 탐색 및 학교 견학 기회 제공 - 사범대학생, 교사, 교수들과의 집단토의,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개별 상담 실시 - 지원 재단 및 장학금 지원 정보 제공
기대효과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성공적 사회통합과 교육의 모범사례, 동질감을 토대로 신뢰확보가 가능하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

출처: Schülercampus - Mehr Migranten werden Lehrer. 정수정, 최순중(2015)에서 재인용.

2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1) 제언 배경

전문가들은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있어서 지원기관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소외계층 청소년의 거주지역 내에 진로교육과 관련한 지원기관이 존재하는지, 어떠한 지원기관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이들의 진로교육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문제는 비단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진로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인프라는 이중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외계층 진로교육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2) 세부 과제

3-2-1. 진로교육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강화

일반적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진로교육 전담교사의 수도 적은 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은 여러 부처들이 관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유사업무가 조정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진로교육과 관련한 인프라가 몰려 있거나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소외계층 진로교육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진로교육 취약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 청소년 집단별 분포 및 관련 지원기관 및 시설 등의 물적자원 분포, 진로교육 전담인력 등의 인적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진로교육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진로교육 인프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진로교육 시설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서는 소외계층 진로교육을 위한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원단은 전국규모의 소외계층 진로교육 선도 교원을 양성하고 취약 지역의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우선적으로 파견되어 컨설팅 및 코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 집단과 지역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전담인력을 고르게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3-2-2. 지역 간 진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찾아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버스를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일선 학교 단위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때, 중앙부처 및 지방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가 운영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 집단별로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소외계층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온라인 상으로 운영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커리어넷이나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 기존의 온라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소외계층 청소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다언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한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의 경우 소외계층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여 직업풀을 구성하고,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직업인을 멘토로 발굴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추진전략 4 지속가능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환경조성

1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1) 제언 배경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처 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내 과별 협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기회보장과의 진로교육정책과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외계층의 진로교육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진로체험처 발굴, 취업 연계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외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2) 세부 과제

앞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 방향에서 언급했다시피,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틀 내에서 통합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자녀들은 일반 학생과 통합지원 방식으로 진로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학생들과 비교할 때 진로체험 기회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경우 현재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지원 시스템인 ‘꿈길’의 진로체험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진로체험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일부는 이러한 활동 정보를 통해 진로체험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내 특수교육정책과와 진로교육정책과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 지원은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내 교육기회보장과의 진로교육정책과 간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부처 간 협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IV-5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구분	부처 간 협력
특수교육대상학생	• 졸업 후 취업가능자: 교육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졸업 후 취업불가능자: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이주배경청소년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부 - 고용노동부 - 법무부(체류 연장 문제) •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교육부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무경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여성가족부)-교육부 ‘꿈길’ 진로체험처 활동 정보 연계 • 비행 유경험: 소년원 및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 기존 소년원에서 두드림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법무부 간 협력

2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 제언 배경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이들의 성인기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이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적 자립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세부 과제

현재 학교와 진로와 관련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관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학교 내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요구와 진로결정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공공민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학교에 일임하는 것은 수업과 학생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외계층 집단별로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소외계층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한 민관기관

네트워크, 취업연계를 위한 사업장 확보 등을 위한 업무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소외계층 집단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교육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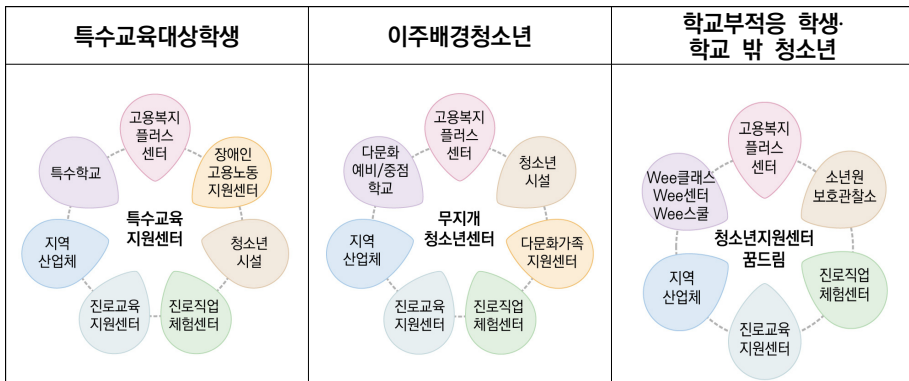


그림 IV-4 소외계층 집단별 진로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지원 전담기관이 되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관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전담기관이 되어 지역 내 다문화 예비학교 및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센터 등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주축이 되어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Wee 서비스 지원체계에 속한 Wee 클래스, 센터, 스쿨 및 비행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처우시설인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기관들과 협력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언 배경

소외계층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주들이 이들의 고용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취업은 쉽지 않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이들의 진로설계나 진로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세부 과제

4-3-1.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과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업 및 사업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개선하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¹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반면, 이주배경청소년이나 학교 밖

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2018. 8.17. 인출.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관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보편적인 차별 금지교육이나 인권교육의 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분리교육은 소외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이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반 학부모와 소외계층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들이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잠재역량과 강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소외계층 집단 내 잠재역량과 강점을 발휘하여 진로개발 및 취업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4-3-2. 소외계층 취업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 지원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소외계층의 자립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로교육 지원이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현재에도 이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처럼 이들의 고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경우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지원은 가시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률 중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연령과(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²⁰⁾) 장애유무(장애인차별금지 및

2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_관한_법률)에서 2018. 8.17. 인출.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²¹⁾), 성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²²⁾)에 따른 것이 대표적인 반면, 피부색, 학력, 출신민족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이주배경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피부색, 출신민족, 학력에 따른 고용 상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 제정 외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고용을 꾀리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 취업 제고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상술한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부처 및 협조부처, 단기 및 중장기 과제성격, 추진 일정 등을 명시한 로드맵을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_법률에서 2018. 8.17. 인출.

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_법률에서 2018. 8.17. 인출.

표 IV-6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로드맵

단기과제: ①, 중장기과제: ②

영역	정책과제	소관 부처	협조 부처	과제 성격	추진 일정
① 균등한 진로 교육 기회 제공	1-1.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확대				
	1-1-1.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교육부		①	'19 상~
	1-1-2.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	교육부		①	'19 상~
	1-2. 소외계층 집단 내 진로교육 사각지대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19 하~
② 소외 계층 진로 교육 지원 내실화	2-1. 소외계층 집단별 특성 및 요구 반영 맞춤형 진로교육				
	2-1-1. 진로 기초역량 교육 실시	교육부		①	'19 상~
	2-1-2.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20 상~
	2-2.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				
	2-2-1. 중장기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①	'19 하~
	2-2-2. 취업 후 추수지도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19 하~
	2-3. 소외계층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2-3-1. 학부모 동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교육부		①	'19 상~
	2-3-2.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 및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①	'19 상~
③ 소외 계층 진로 교육 지원 인프라 강화	3-1.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3-1-1.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부		①	'19 상~
	3-1-2. 소외계층 진로교육 전담인력 확충	교육부		●	'19 하~
	3-2.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3-2-1. 진로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강화	교육부		●	'19 하~
	3-2-2. 지역 간 진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①	'19 상~

영역	정책과제	소관 부처	협조 부처	과제 성격	추진 일정
4 지속 가능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환경 조성	4-1.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중기부	●	'19 상~
	4-2.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19 하~
	4-3. 소외계층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3-1.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부	고용노동부	●	'19 하~
	4-3-2. 소외계층 취업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부	고용노동부	●	'19 하~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자료]

교육부(2018. 7. 2.).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교육부 보도자료.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4697&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4&s=moe&m=0503&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2018.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교육부 내부 문서.

관계부처합동(2018.3.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교육부(2018. 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3&boardSeq=7345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9&opType=N>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2017. 12.).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730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교육부(2017. 8. 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941&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교육부(2017. 3. 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825&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30209&opType=N>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2016. 4. 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27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8&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6월 8일 인출.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a).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1.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b).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3.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c).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2.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d). 3개 집단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집단 진로지

- 도 프로그램.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5.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통계.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015. 1. 6.).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 내부문서.
- 교육부(2013. 8.).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50466&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4825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9&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2008. 8.).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9&boardSeq=1207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6&s=moe&m=030208&opType=N>에서 2018. 8. 15. 인출.
- 김요섭(2014). 일반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학습장애연구, 11(3), 23-44.
- 남북하나재단(2016).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2017.6.2.). 2017년 탈북청소년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 안내문.
https://www.koreahana.or.kr/notice/notice_view.jsp?sc_searchCnd=title&sc_searchWrd=%EB%B0%95%EB%9E%8C%ED%9A%8C&pk_seq=92122&page=1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 박성훈, 김지영, 조영오, 김현정, 황여정, 김정숙, 배상균, 고나영(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 서울: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박영근, 윤형진 (2015).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실행
방안에 관한 교사인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3), 213-233.

박혜준(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1), 99-129.

박희찬(201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
(2), 59-81.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2018.3.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XSBFITmfF
VuZLJ27wocSwifs.mogef21?mid=plc503&bbsSn=704771](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XSBFITmfFVuZLJ27wocSwifs.mogef21?mid=plc503&bbsSn=704771)에서 2018년 8월 17
일 인출.

연보라(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V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혜영, 박현진, 공운정, 김범구, 양대희, 최영희, 성벼리, 이정실(2012).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상담 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철경, 성운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진석(2014).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시민성 탐색. 시민교육연구,
46(4), 79-105.

이혜영, 손홍숙, 김일혁, 김미숙(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 서
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이정화, 김미숙(2013).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인천광역시교육청(2014a). 탈북 중학생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 인천광역시교육청(2014b). 탈북 고등학생 직업교육 매뉴얼.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 정민호, 김삼섭 (2010). 특수학교의 학교기업 운영에 대한 장애유형별 특수교육교육원의 인식비교. 특수교육연구, 17(1), 101-127.
- 정수정, 최순중(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연구, 26(3), 77-101.
- 최경자, 광종문, 채경희, 박찬수(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7.8.2.). 2017년 탈북학생 주요통계.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8년 8월 5일 인출.
- 통일부(2018. 4. 2.).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http://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402&category=&pageIdx=에서 2018년 5월 14일 인출.
- 행정안전부(2017.11.16.).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

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0528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홍정숙(2015).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0(2), 277-305.

[홈페이지 자료]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wee.go.kr/home/intro/intro02001v.php>에서 2018. 8.10. 인출.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sub05_3_1.asp에서 2018. 8. 10. 인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rainbowyouth.or.kr/index/rainbowyouth.php>에서 2018. 8. 6. 인출.

[법령 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 2018년 8월 2일 인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에서 2018년 8월 2일 인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진로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특수교육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27&query=%ED%8A%B9%EC%88%98%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undefined>에서 2018년 8월 2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8년 8월 6일 인출.

[해외 자료]

Schülercampus-Mehr Migranten werden Lehrer. <http://www.mehr-migranten-werden-lehrer.de/h/>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인 쇄 2018년 8월 27일

발 행 2018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